

일본에서 한자점자가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의 비판적 고찰

아베 야스시

대구대학교 BK21 특수교육 교육·연구단 석사과정

《요약》

일본에서 한자를 표기하기 위해서 기존의 점자체계에는 없던 ‘한자점자’가 두 가지 고안되었다. 본 연구는 그 사건의 사회적 배경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한자점자가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에는 일본 사회에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적 교육사상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한자사용을 줄여 왔듯이 일본에서도 한자사용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한자 사용을 줄이고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일본어표기, 한자점자, 능력주의, 문해연구

I. 들어가는 말

인간이 문자를 읽고 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읽고 쓰는 것이 학습의 기초라고 보는 것은 하나의 ‘능력주의’로 간주할 수 있다. 만일 어렸을 때 문자를 배우지 못하여 성인이 되어서 읽기·쓰기를 학습하게 될 경우라면 읽기·쓰기는 더더욱 어려운 과제가 된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으로 읽기·쓰기를 고찰해 보면 읽고 쓰는 ‘문해능력’을 자명한 것으로 보는 생각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읽고 쓰는 것을 ‘자연적’인 행위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 ‘문해능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문해연구’라는 연구분야가 새롭게 성립되고 있다(菊池, 1995; Gee, 1996; 한승희, 1997). 문해연구는 읽기·쓰기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 권력·지식·문화 등과 밀접히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菊池, 1995:40). 즉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는 권

력관계가 밀접히 관계되어 있으며, 읽기·쓰기는 ‘중립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菊池, 1995:18).

이러한 관점으로 특수교육을 자성적으로 살펴보면 특수교육이 가지는 능력주의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아동에게 읽기·쓰기를 교육한다는 미명아래 인간이 읽고 쓰는 것을 당연한 행위로 보고 문해능력이 학습의 기초라는 생각에는 자문화중심주의적 교육사상이 보여진다.

‘장애’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사회현상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오늘날의 특수교육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것을 ‘장애’라 하여, 치료교육적 관점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전제로부터 벗어나 장애는 사회가 만드는 것이며, 문제는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장애학의 주장이다(石川, 長瀬, 1999; 倉本, 長瀬, 2000; 石川, 倉本, 2002). 여기서 말하는 ‘장애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교육 안에서 성립한 학문이 아니라 사회, 의료, 사회복지, 특수교육을 비판하는 장애인운동 속에서 성립한 학문이다. 이러한 장애학적 관점으로 ‘읽고 쓰는 것’을 고찰해보더라도 읽기·쓰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특수교육에 있어서 문자를 읽고 쓰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고안된 ‘한자점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한자를 점자로 표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한자점자 시스템이 고안되었다. 한자점자라는 것은 점자사용자를 목자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자는 모양이 복잡하기 때문에 점자로 배우는 것은 정안자가 목자로 한자를 배우는 것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자점자를 점자사용자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점자문화를 한자문화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분리교육으로부터 통합교육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점자라는 장애인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고찰을 다시 한번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논의를 통해서 사회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한자점자가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분석을 통하여 장애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II. 일본어표기법은 왜 어려운가?

일본어는 아주 복잡한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2000자를 넘는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섞어 쓰며, 가끔은 로마자를 함께 쓰기도 한다. 카타카나는 외래어나 외국

인 이름이나 지명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히라가나는 어감이 외래어가 아닌 단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다. 일본어표기는 주로 세 가지 문자를 섞어 쓴다는 이유로 띄어쓰기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어 한자음은 원칙적으로 일대일로 대응되는 한자는 거의 없으며, 어떤 한자는 한자음이 열 가지 이상 있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한자를 음독(on yomi)과 훈독(kun yomi)으로 다르게 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haru(봄)'를 '春'이라고 쓰고 'seisyun(청춘)'을 '青春'이라 쓰기 때문에 '春'이란 한자에는 'haru(봄)'와 'syun(춘)'이란 한자음이 두 가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일본어 한자에는 보통 두 세가지 한자음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자사용권에는 없는 이러한 습관이 일본어 한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한자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운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나, 그 주장이 주류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정도로 한자를 쓰지 않는 일본어표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한자교육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반면, 한국은 한자 사용을 정책적으로 줄여 왔으며, 현재는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적 차이를 특히 특수교육의 분야에서 상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Ⅲ.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점자가 '문제'인가?

일본어 목자가 매우 복잡한 반면 일본어 점자는 단순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히라가나와 카타카나의 차이도 없으며, 목자의 현대 맞춤법에는 발음하는 대로 쓰지 않는 단어의 경우에서도 점자 맞춤법에서는 발음하는 대로 쓴다. 때문에 일본어가 제1언어가 아닌 사람이 일본어를 학습할 경우에 문자매체는 목자보다 점자가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어 점자는 일본어를 표기하는 데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표기에는 한자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어 점자가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기 쉽다. 목자의 일본어 표기가 문제로 간주될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맹교육에 관계하는 교육자조차 한자를 함께 써야 일본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점자 기호로 한자를 표기하는 시스템이 두 가지 고안되었다. 하나는 맹학교 교사였던 카와카미 타이이치가 만든 카와카미식 '한점자(漢点字)'이며, 또 하나는 중도 실명자인 하세가와 사다오가 만든 하세가와식 '6점한자(六点漢字)'이다. 실제로 이 한자점자를 사용하는 맹인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자점자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맹교육의 전문가인 쿠로카와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쿠로카와는 점자에 한자가 없는 것을 문제로 보고 '점자의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쿠로카와에 의하면 ‘점자 문제’라는 것은 첫째, ‘띄어쓰기가 어렵다는 것’, 둘째, 한자 없이는 ‘동음이의어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 셋째, ‘일본어에는 한자가 필수이며, 한자의 지식 없이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黒川, 1984:45). 쿠로카와가 이렇게 ‘점자 문제’를 논하는 이유는 ‘한자점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쿠로카와는 ‘한자점자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설명하고 있다. 첫째, 오랜 세월을 걸쳐 배양된 일본문화 속의 한자문화를 시각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에게도 이해시키고 싶다는 것, 둘째, 대학교 입학시험이나 기업 입사시험에는 한자의 지식이 필수인 경우가 많으며, 그 첫출발에서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 셋째, 컴퓨터와 관련되어, 이제까지는 점자사용자는 한자를 읽고 쓸 수 없었으나 한자의 지식이 있는 맹인이면 어떤 코드를 지정하면 한자와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서는 위의 두 가지 한자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IV. 점자사용자를 ‘위한’ 한자점자

1. 하세가와 사다오(長谷川貞夫)의 ‘6점 한자(六点漢字)’

두 가지의 한자점자 중 하나인 6점한자는 21살에 실명한 하세가와 사다오(長谷川貞夫)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세가와는 1966년에 신문사에 견학했을 때 한자와 일대일로 대응하는 구멍으로 된 코드가 있는 것을 듣고 ‘컴퓨터를 이용하면 전맹이라도 한자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1981년에 하세가와는 한자의 음독과 훈독을 조합한 한자점자(6점한자)를 발표하였다(田中, 1991:177-179). 하세가와는 6점한자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자에는 그 도형적인 성질로서의 부수, 음을 표시하는 음독과 훈독, 그리고 뜻이 있다. 점자를 구성할 때는 상용한자는 가능하면 그 음과 훈을 구성요소로 하는 게 좋다. (중략) 부수는 음과 훈만으로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한다(長谷川, 1977:93).

하세가와는 중도실명자이기 때문에 한자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자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하세가와는 ‘시각장애인이 평소에 사용할 점자는 가나점자가 편리하다. 그것은 가나로 쓰면 촉각으로 만지는 점자를 거의 그대로 표음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설명하고 있다(長谷川, 1977:92). 즉 하세가와가 보기에 한자점자가

일상적인 사용에는 편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하세가와가 한자점자(6점한자)를 만든 이유는 21살 때까지 쓰던 한자를 다시 읽고 쓰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램과 엄연히 다른 점자체계와 묵자체계를 소통하고자 하는 바램이었을 것이다(長谷川, 1977; 田中, 1991).

2. 카와카미 타이이치(川上泰一)의 ‘한점자(漢点字)’

또 하나의 한자점자는 맹학교 교사였던 카와카미 타이이치에 의해 만들어졌다. 카와카미는 1949년에 맹학교에 취직하여 일본어 점자에 한자가 없는 것에 충격을 받고, 1970년에 ‘한점자’를 공식으로 발표하였다(あべ, 2002:41).

카와카미는 한자와 한점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자에는 의미, 음, 형(모양)의 세 가지 특질이 있다. (중략)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질은 한자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자는 세계에서 유례가 적은 표의문자이다. 의미는 주로 부수로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 3000년의 역사 속에서 생긴 것이며, 부수를 무시하여 한자를 만들 수는 없다. 한자의 음독과 훈독으로 만든 문자는 한점자가 아니다.

한자의 모양이 복잡해서 약자가 만들어져 있는 데 한점자는 최종적인 약자라 할 수 있다(川上, 1977:86).

카와카미는 그때까지 ‘한자의 점자(한점자)를 만들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을 ‘일본 맹인에 있어 큰 손해였다. 맹계(盲界), 맹교육계의 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맹교육계는 한점자를 정식으로 채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점자를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川上, 1977:90-91).

카와카미가 한자라는 문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주장에 볼 수 있다.

나는 일본인이 머리가 우수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의 한자교육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한다(川上, 1992:76).

한점자에 대한 맹인의 고민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한자문화권 각 나라의 문제이기도 한다. 이러한 나라들은 모두 표음문자로 한자를 처리하고 있으나, 한점자는 이 부합의적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여, 동아시아의 맹인문화를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川上, 1977:91).

위의 설명을 보면 카와카미에게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전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한자점자의 현재

손가락으로 읽는 점자의 특성을 생각하면 한자점자를 읽는 것은 정안자가 목자를 배울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후쿠이 테츠야(福井哲也)는 컴퓨터로 한자를 직접 치는 데 한자점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정안자보다 빠른 속도로 한자를 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된다고 하였다(福井, 1996b:50). 결국 한자점자는 마시코 히데노리가 논하고 있듯이 ‘대중적으로는 완전히 비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마시코, 1999:13). 때문에 현재 한자를 사용한 일본어 목자를 읽고 쓰려고 하는 맹인은 맹인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자점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자점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도 한자점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asgupta는 현재 일본에서 맹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맹인이 많은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6점한자의 의의가 없어질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Dasgupta, 2002:746).

또한 한자점자를 보급하려는 단체로서는 6점한자협회(六点漢字協會, 하세가와 사다오 회장)와 일본한점자협회(日本漢点字協會, <http://www.kantenji.net/>)가 있다. 한점자를 지지하여 보급하는 봉사단체로서 요코하마 한점자 우화회(横浜漢点字羽化の會, <http://ukanokai-hp.hp.infoseek.co.jp/>)와 오오이타 한점자연구회(大分漢点字研究會, http://www.nagao-net.com/daikan_top.html)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자점자의 보급운동이 현재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한자점자는 과거의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V. 한국의 상황이 시사하는 것

여기까지 일본에서 한자점자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 지를 살펴보았다. 아래서는 먼저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1. 옵타콘을 사용한 한자교육의 시도

옵타콘(Optacon)은 1971년에 미국에서 개발된 기구이며, 맹인이 목자를 직접 읽을

수 있게 만든 ‘맹인용 전자독서기’이다(김승국, 김도수, 김원경, 1988:11). 김승국 외(1988)는 오타콘으로 어떻게 목자를 읽을 수 있는 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타콘에 의한 읽기는 촉지판위에 손가락 바닥을 올려 놓고 핀의 진동에 의해 손가락의 바닥에 와 닿는 촉감각으로 한다.

카메라가 인쇄물의 행을 따라 이동하면 문자·기호 또는 도형이 손가락의 바닥을 지나가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것은 마치 간략한 뉴스가 TV화면의 아래쪽을 흘러 지나가는 것과 같이 지나간다(김승국, 김도수, 김원경, 1988:30).

이 오타콘은 일본에 소개되어 목자교육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김승국 외(1988)는 오타콘을 사용하여 맹아동에게 한자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으며, 한자는 점자나 알파벳과는 달리 표의문자이다. 이 표의문자 하나 하나가 주는 정보나 뉴앙스는 표음문자가 주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어를 할 때에도 한자로 하고 있고, 많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맹학교 고등부에서는 이료과를 전문직업교과로 가르치고 있는 데, 이료과에는 중국에서 전래된 많은 한자용어가 들어 있다.

정보나 뉴앙스를 알고, 조어를 하며,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맹인도 한자를 알아야 한다.

오타콘의 개발로 맹인은 한자를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한자 하나 하나가 주는 정보나 뉴앙스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김승국, 김도수, 김원경, 1988:11-12).

위의 주장을 보면 한점자를 만든 카와카미가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고 장애인을 사회에 적응시키려는 교육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자점자의 옥편의 고안

위의 주장과 비슷한 생각으로 한자점자의 옥편이 2000년 12월에 만들어졌다. 7살 때 실명한 맹인(김필련, 한국맹인이료연구회 회장)이 만든 것으로, 한자의 부수, 획

수, 음을 합성한 것이다. 김필년이 15년의 세월을 걸쳐 한자점자의 옥편을 만든 것은 한의학의 책 중에는 어려운 한자어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한국맹인이료연구회, <http://kobai.com.ne.kr>). 그러나 이 한국의 한자점자도 맹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것은 한국에서는 한자를 읽고 쓰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점자사용자를 근거로 한 한자폐지론

현재보다는 한자를 많이 사용했던 시기에는 한국에서도 맹인에게 한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는 데, 한편 서울 맹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김천년은 1966에 맹인이 쓰는 점자야말로 한자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천년은 ‘점자를 사용하는 맹인들이 절감한 한글의 우수성’이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우리말로 된 각종의 책을 맹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읽으려면, 한글 점자만을 한글로만 점자를 사용해야 하는데, 한글이 돼서 해독이 난처한 경우는 전혀 없다. 만일 한자로 적지 않으면 이해 곤란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정론이라고 친다면, 점자를 사용해야 하는 맹인들은 정확한 지식 습득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지만, 그 진상은 전연 달라서, 어려운 칠서나 독특한 불서의 뜻까지도 지식있는 맹인들의 촉각을 통해서 거뜬히 해독된다(김천년, 1966:25).

이 논문은 1966년에 발표된 것이며, 한자를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미 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현대 한국의 관점으로 보면 특별한 의의가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한자를 사용하는 일본의 상황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일본어도 점자사용자들이 증명했듯이 한자는 반드시 필요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다(ましこ, 2001).

김천년은 한글 전용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한글 전용을 반대한 편의 제일 크게 내세우는 이유는, 우리말이 대부분 한자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만일 한글로만 적어 놓으면, 그 뜻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랜 시일을 두고 한자에 집착이 돼 온 습관에 불과한 이유에 더 지나지 않는다(김천년, 1966:24-25).

이 주장은 현재 일본의 상황에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VI. 사회적 장애로서의 한자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언어와 언어를 표기한 문자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키릴문자로 표기되는 러시아어를 로마자(abc)로 표기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러시아어이다. 영어를 만일 한자로 표기하더라도 영어는 영어이다. 그것은 일본어를 점자로 표기하면 ‘점자어’가 되는 게 아님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일본어를 로마자로 표시한 부분이 몇 개 있는 데, 그것도 ‘영어’가 아니라 일본어이다. 그런데 언어와 표기를 구분하지 않고 언어와 표기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는 생각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국어표기도 근대까지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현대의 한국인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일본어표기를 보면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문자에 대한 인식이 변하였다. 한글세대의 한국인이면 한자없이 한글만으로 한국어를 읽고 쓰는 것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오랫동안 정책적으로 한자사용을 줄여온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언어의 표기법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바뀌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2002)는 ‘한자라는 장애’에서 일본의 교육현장에서 한자를 어떻게 교육하는지,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맹인에 대한 한자의 강요를 분석하면서, 그 이외에 어렸을 때 읽기·쓰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약시자, 읽기장애를 가진 사람들, 일본수화를 제1언어로 하는 농인, 일본어가 모어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아베(2002)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치료교육적인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판하여, ‘한자를 사용하지 않을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자를 사용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일 것이다. 이것은 한자를 장애로 대치시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즉 휠체어로 이동할 권리가 있듯이 한자를 사용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이다. 어딘가에 이동할 때 고생하는 사람이나 한자를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의 ‘문제’라는 것은 둘 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회의 문제이다는 것이다.

일본어의 문장은 한자를 섞어 써야 일본어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한자를 혼용한 문장은 단지 ‘보통’이며 ‘일반적’인 것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이 ‘보통’이 될 필요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히려 ‘보통’이란 개념을 다시 반문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자혼용문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많은 희생 위에 성립하는 표기법이 ‘최고’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최고인가. 그것이야말로 다시 반문해야 할 것이다(아베, 2002:52-53).

여기서 비판하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자명한 ‘능력’이 아니며, 뭔가를 ‘못하는’ 사람들을 일반사회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동화주의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편한 대로 정보를 받고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특수교육이 부정하여 능력주의를 재생산하고 있다면 특수교육의 전문가는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존재로서 사회적 장애요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자성적으로 반문하면서 개선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VII. 맺는 말

현대 사회에서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읽기·쓰기는 더욱 더 ‘기본적 능력’이라고 간주된다. 한국에서 ‘컴맹’이라는 말이 있는 데, 이 말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문제’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컴맹’이란 개념의 근본에 있는 ‘문맹’이란 존재는 ‘과거의 일’이라는 전제가 있다. 현대사회는 읽기·쓰기의 능력주의가 더욱 더 당연시되는 사회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문해능력이라는 것은 단지 읽고 쓰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 매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매우 복잡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읽기·쓰기’ 자체에 숨겨진 차별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것은 일본어 한자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고 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대 일본에서 읽기·쓰기를 못한다고 해서 어떤 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는 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 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송희는 문해연구의 문제의식으로 ‘문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전략) 하필 ‘문해(文解)’ 보다는 ‘문맹(文盲)’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이유는 그 중층구조의 서열을 정당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해자에 대한 존경보다는 비문해자에 대한 경멸이라는 부정적 강화기제를 통하여 그 지적 서열을 유지하고 정당화해 왔기 때문이다(한송희, 1997:89).

한송희가 지적하는 것은 ‘문해능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서열을 만드는 인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한송희가 영어나 한자어에 대해 어떻게 언

급하는 지를 보자.

(전략) 오늘날 설세없이 튀어나오는 영어 단어들과 한자어들 속에서 소위 ‘문해자’들이 느껴야 하는 또 다른 벽의 두터움은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한승희, 1997:90).

그렇다고 한다면 점자로 한자를 표기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두 가지의 한자점자가 만들어진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봉사는 ‘선의’에 기인한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자점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이 완전히 ‘선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한자를 교육하고 ‘무식한’ 사람이 한자교육을 받는다는 관계는 ‘중립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한자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있는 서열관계를 생각하면 그러한 전제는 붕괴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사회적 장애를 해소할 수는 없다. 사회적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실제로 자기의 생활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많은 ‘일반인’들이 사회를 바꾸려고 할 때 가능한 것이지만 단지 소수의 힘으로는 달성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학회지에 논문을 쓸 때 일반적으로 요약은 영어로 작성한다. 그러한 투고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일본에서 한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세계에서 영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맞먹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일본에서 사회통합을 근본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언어와 문자의 민주화를 위하여 사회구조(일본어표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승국, 김도수, 김원경(1988). **맹인용 전자독서기 옴타콘**, 서울: 단대출판부.
- 김친년(1966). 점자를 사용하는 맹인들이 절감한 한글의 우수성, **한글**, 제136호, 15-27.
- 한승희(1997). 문해(文解)의 문화정치학, **교육개발**, 제107호, 89-92.
- あべ・やすし. (2002). 漢字という障害, **社會言語學Ⅱ**, 37-55.
- 石川 准, 長瀬 修. (1999). **障害學への招待**, 明石書店.
- 石川 准, 倉本 智明. (2002). **障害學の主張**, 明石書店.
- 川上泰一. (1977). 漢点字の進路, **盲教育**, 52, 85-91.
- 川上泰一. (1992). 盲人と文字, **しにか**, 1月号, 65-76.
- 菊池久一. (1995). <識字>の構造, 勁草書房.
- 黒川哲宇. (1984). 点字問題をめぐって, **特殊教育學研究**, 第21卷第4号, 44-47.
- 倉本智明, 長瀬 修. (2000). **障害學を語る**, エンパワメント研究所.
- 田中良太. (1991). **ワープロは社會を變える**, 中央公論.
- 長谷川貞夫. (1977). 6点漢字と自動代筆・自動点譯, **盲教育**, 52, 91-105.
- 福井哲也. (1996a). パソコンと点字, **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 7月号, 44-46.
- 福井哲也. (1996b). ワープロと視覚障害者, **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 8月号, 48-50.
- ましこ・ひでのり. (1998). 障がい者文化の社會學的意味, **解放社會學研究**, 12, 6-30.
- ましこ・ひでのり. (2001). **増補版 イデオロギーとしての「日本」**, 三元社.
- Dasgupta, K.(2002). Brailled Kanji: The Hasegawa Approach.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96(10), 743-746.
- Gee, J. P. (1996). *Social Linguistics and Literacies : Ideology in Discourses*. 2nd. ed. London: Falmar Press.

A Critical Study of Why ‘Brailled Kanzi’ systems were Made in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Context–

Abe Yasusi

BK21 Project Force of Special Education

<abstract>

Two kind of Brailled Kanzi(Chinese Character) was made in Kanzi-oriented Japan. One is HASEGAWA Sadao’s approach, who visually impaired as an adult. Another one is KAWAKAMI Taiiti’s approach, who was a teacher of school for blind. This study considers the social context of why two kind of Brailled Kanzi systems were made in Japan.

Dominant people in Japan thinks Japanese writing system is excellent for its complexity. But even though the people who educated Kanzi over 10 years, many faces difficulty of reading and writing Kanzi. And we can find Brailled Kanzi is far from appropriate for daily use.

As Disability Studies argue that ‘disability is socially constructed’ and as Literacy Studies argue that ‘literacy is not an autonomous practice’, we can say thousand of Kanzi characters are social disability, and ‘how we write Japanese’ is highly political determination.

When we consider that Korean society has already turned into hangul-oriented society, then, we also have the possibility of reforming Japanese writing system.

This paper concludes that what we need is not such like those ‘Brailled Kanzi’ systems but we need reforming Japanese writing system for social inclusion.

Key words : Japanese writing system, Brailled Kanzi, ableism, Literacy Studies